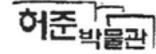




체형교육의 장  
**허준박물관**



수신자 문화재청장

(경유) 유형문화재과장

**제 목 보물 『동의보감』의 국보 승격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7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 2013년 『동의보감』간행 400주년에 즈음하여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의보감』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귀 청에서 국보 승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 『동의보감』 초간본 보물 3종

- 보물 제1085호 오대산사고본(국립중앙도서관) 25권 25책 : 1991.9.30
- 보물 제1085-2호 장서각본(한국학중앙연구원) 25권 25책 : 2008.8.28
- 보물 제1085-3호 태백산사고본(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4권 24책 : 2008.8.28

○ 공동 제의 기관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근

(무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전보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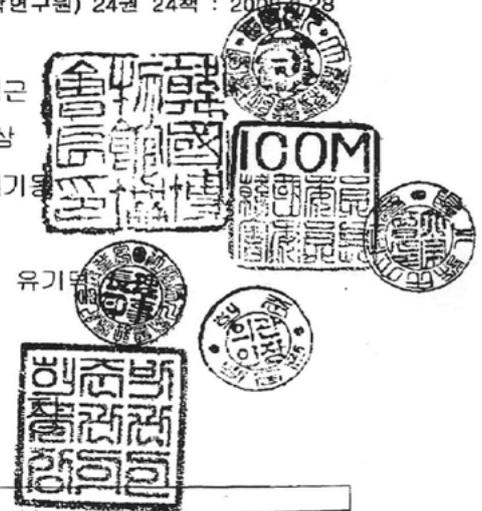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배기용

양천허씨대종회 회장 허찬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이사장 유기현

허준박물관 관장 김쾌정

공립 허준박물관



학예사 : 박 정 영

실장 : 강 은 수

관장 : 김 쾌 정

시 행 : 허박-12-687

( 2012. 12. 1 )

접 수

우 157-202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87

/ www.heojun.seoul.kr

전 화 : (02)3661-8666 전 송 : (02)3661-8639

/ alive70@hanmail.net

양평군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허준”을 클릭해 주십시오.

허준 박물관 홈 페이지를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허준박물관”을 클릭해 주십시오.

70 '우리 일' 문화유산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2015.5.1.~7.20.)

문화융성



### 보도자료

[2015. 6. 22.]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은영 연구관(042-481-4686), 이종숙 연구사(042-481-4687)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東醫寶鑑)」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319-1호, 제319-2호, 제319-3호로 승격 지정하였다.

동의보감은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御醫)였던 허준(許浚, 1539~1615년)이 1610년(광해군 2) 완성하여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한의서로, 조선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서적과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은 책이다.

1613년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은 총 25권 25책으로, ▲목록 2권 ▲내과질환에 관한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과질환에 관한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유행병·급성병 등에 관한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약재·약물에 관한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과 뜸에 관한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25권 108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병의 이론, 처방, 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고도의 서양식 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두루 적용되고 있어 당시 조선의 의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의보감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소개되어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는 등 동양의 의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국내외에 36종의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2009년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사해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과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국보 지정 목록.
- 2. 사진 자료. 끝.

(붙임 1)

### 국보 지정 목록

연번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량	규격	소유자(관리단체)	비고
1	동의보감 (東醫寶鑑)	국보 제319-1호	25권 25책	36.6×22.0cm	국유 (국립중앙도서관)	오대산 사고본 (강원 평창)
2	동의보감 (東醫寶鑑)	국보 제319-2호	25권 25책	36.6×22.0cm	국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적상산 사고본 (전북 무주)
3	동의보감 (東醫寶鑑)	국보 제319-3호	24권 24책, 17권 17책	36.6×22.0cm	국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태백산 사고본 (경북 봉화)